

## 또 公 害 放 談

崔 昌 奎 (新進建築設計事務所)

前般에 弄半眞半의 公害放談을 썼다. 그때 생각했던 것이 남아 있어서 “또 公害放談”으로 써볼까 한다. 公害란 말할것도없이 加害者가 少数이고 被害者가 多数인 境遇 公害로 認定된다는 것과 加害者나 被害者 둘다다가 人間 이라는데 妙味가 있는 것이다.

勿論 이 글이 研究發表論文이 아니고 小雪이 지난 요즈음 爐邊放談程度이니 글 内容이 漫調가 되는 것은 먼저 謝過해야겠다.

人間은 先天的이건 後天的이건間에 많은 矛盾을 지니고 있는 動物임엔 틀림없다. 예를 들면 그렇게도 実利를 찾으면서도 담배(煙草)가 몸에 利롭다고 알고 피우는 사람은 없듯이 몸에 害로운줄 알면서도 기를쓰고 피운다든지, 平和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戰爭을 한다든지, 殺生이나쁜줄 알면서 殺生을 한다든지, 敵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도 戰爭터에서는 쓰러진 戰友를 看護하면서 敵에게 當한다든지, 能히 解決할 수 있는 것을 解決은 안하고 問題의 周辺을 일부러 membership 하면서 걱정과 부산을 떠다든지 하는 境遇가 許多하다. 이렇듯 人間은 公害가 되는 것을 알면서 즐겨 그 公害를 더 造作하고 結局은 自己도 그 公害에 被害를 입고 나중에는 滅亡의 길로가야 하는 運命에 있게 되는것은 人間自身들에게 그 責任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長久한 時間해은 人間들은 요즈음 갑자기 公害를 云謂하며 떠들어댄다. 可笑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卽 生覺과 言行과 말과 行動과, 理論과 實踐이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이 現 人間社會 生活인것만 같다. 바로 이같은 그 矛盾되는 点들을 公害로보고 放談形式으로 써볼까 하는것이다. 그것들은 前般의 열네가지의 例拳에 이어 1. 오만 2. 배짱 3. 생색 4. 체 5. 時間 6. 流行 7. 多目的 8. 韓國的 9. 電話 10. 崇拜 11. 卑屈 12. 清潔 13. 寬容 14. 忘却 15. 勸誘 16. 慈善 17. 獨善이다. 이것들을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오만公害, 人間은 靈長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보면 動物임에 틀림없다. 動物이기에 本能을 가지고 있다. 그 本能中엔 種族繁殖이란게 있다. 自己種族을 增殖시킬려면 性的 對象이 있어야한다. 모-든 動物과 같이 交尾, 交配, 合宮, 性交가 있어야만 하기에 對象性에게 好奇心이나 興味를 갖게 하든지 人氣가 있어야 한다. 人間은 (男性) 相對的인 女性에게 남보다 돋보이게해서 女性을 自己에게 끌리게 해야한다. 거기서 여러가지 몸짓, 衣服, 言辯, 才操等等으로 他男性보다 女性을 가까이 하자는 本能에서 別난操作을 다한다. 그중에 오만도 包含된다. 현대 이때 異性에게는 好感이가든지 끌리든지 하겠지만 同性끼리는 嫉妬와 같은 或은 “라이벌”意識같은게 일어나서 不快하기 짝이없다. 따라서 한男性이 오만한 態度나 行動을 했을때 같은 男性들은 다같이 氣分이 언짢고 利害關係도 一面不知의 사이라도 그가 미워지고 不快해진다. 따라서 한 사람의 오만이 많은사람에게 不快을 주든지 憤怒까지 일어나게 한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公害인 것이다. 오만은 心理學的의 면에서보면 劣等感이나 自己不足, 無能力, 自信이없을때 이것들을 감추기 爲해서도 나타난다 何如間 오만은 사기성이되든, 誇張性이 되든 한사람의 오만이 萬人에 不快하게 느껴지면 公害인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 周辺에 오만公害가 充溢되어있다. 市内 버스속에서, 會議席上에서, 거리에서, 到処에서 이런 公害에 부딪친다. 그 오만한자가 一面不知의 사이라도 한대쯤 쥐어박고 싶은것은 비록 筆者뿐만은 아니리라 믿는것이다.

② 배짱公害, 怪常한 公害도 다있 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배짱이 센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虛勢에 가까운것이 事實이고 内容을 分析해 보면 배짱이란 性格이나 氣象에도 關係는 되겠지만 大概의 境遇는 職業的, 習慣的인때가 많다. 배짱이 세보았자 別것이 아니고 結局은 힘 (power)

인것이다. 이힘이 金力이건 權力이건 體力이건 힘인것이다. 제아무리 배짱이 센 사람에게서라도 上記한 세가지 힘만 剝奪해버리면 卑屈한 사람이 되고말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이배짱이 公害가 되는가? 即 배짱을 부리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到處에서 마구 이배짱을 부리니 公害가 된다는 것이다. 交通巡警에게 배짱을 부리는 運轉手, 官庁에가서 부리는 市民, 市民에게 부리는 官公吏, 先生에게 부리는 學生, 男便에게 부리는 아내의 배짱等等... 許多하지만 어딘가 배짱이라고하면 自己보다 윗사람이나 紳사, 또는 그런 機関이나 對相에게 부리는 것은 確實히 反抗的인 面이 있다는것은 뜻하기에 公害치고는 좀 善良한 高級에 屬하는 公害일것만 같다.

③ 생색公害, 생색이란 남에게 物心, 便宜等を 提供(援助, 協助)했을때 일어나는 狀態로서 公害가 될 理由가 없는데도 公害의 例에 올려놓는 것은 바로 善意나 適當한 생색이 아니고 當然한것을 또는 하지않고 한것처럼 내는 생색을 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末端官公署에서 民願處理等에서 當然히 할일을 하고 안되는 것을 自己의 職責이나 裁量으로 한것처럼 내는 생색(손도내밀고 恩惠를 입힌다)

學校先生이 學生에게 생색을 낸다면 平常時의 그는 勤務怠慢이었던 것이다. 이 생색의 反對는 謙讓이다. 理知的인 現代人들은 謙讓같은 것은 옛날의 美德이지 現代에서는 安撫한 妥協이다라고들 하지만 善意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謙讓은 現代에서도 美德임엔 틀림없는 것이고 다만 이 謙讓이 程度를 지나칠 때에 正反對인 오만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美德인 謙讓도 언젠가는 公害의 列에 끼워질 可能性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④ 체公害, 아—이 체公害만은 할말이 없다. 너무도 많아서 常識化, 習慣化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알면서도 모르는체, 모르면서 아는체 等等 正反對되는 체가 共存하면서 適所適時에 마구 亂用된다. 이 체公害에 對하면 不愉快는 勿論이고 唾棄, 嘔吐가 날 地境이다. 그래서 公害가 되는 것이다

특히 無識이 有識한체 能力이나 實力이 없으면서도 있는체 하고 行勢하고 있고 또 그 行勢가 通하는 社會이니 이 社會는 벌써 체公害에 浸害當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체公害를 發散하고 다니는 사람 自身도 泰然하지만 체公害에 被害를 입지 않고 앓는 체할 뿐이다. 이 世上에 살면서 남을 속이는 것은 그래도 보아줄 수가 있다고 해도 自己自身을 속이고 있으니 체公害만은 加害者도 被害者가 되고 있다는데 이 公害의 特徵이 있다.

⑤ 時間公害, 建築哲學에서는 人間의 가장 貴重한 生命을 時間+空間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람들은 社會와 時代

가 發達하면 할수록 時間의 貴重함을 認定하고 時의 記念日(六月十五日)이니 많은 標語 即 “時間은 黃金” “寸刻不可輕”이니 “時間은 生命”이니하며 이 時間의 價值와 效能의 威力을 잘 理解하고 있으면서도 時間을 浪費하거나 疎忽히 하든지, 지키지 않는다. 小數의 時間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因해 多數의 사람들이 弊를 입기 때문에 公害라고 불러보는 것이다.

所謂 Korean time이라는게 있고, dead time이 있고, Local time이 있다. 특히 우리 韓國民이 時間觀念이 없어서 Korea time이란 不名譽스러운 單語가 생긴 모양이다.

作故한 前 比律賓의 “막사이사이”大統領이 在職時에 時間을 嚴守해서 會合의 主催者를 唐惶케했다는 痛快한 逸話가 있다. 會議나 모임에 일부러 늦게가야 偉大하고 大端한 것처럼 생각하는 可笑로운 所謂 文化人이나 知識인들이 있다. 이런 者들은 文化人이나 知識人이라고 부를 必要도 없는 價值도 없는 似而非族屬들이다.

우리 建築界에 이런 者들이 許多하다. 그들 心理는 到底히 理解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가 그런 職이나 層에있는지가 疑心스러운 程度이다. 그러한 心理는 劣等感이나 無能力을 감춘다든지, 獨高한체하는 어리석은 心事인것만 같다. 現代人은 時間에 끌리어 살고있고 물려 살고있다. 하기가 時間과 힘이 全宇宙를 支配하고 있는것도 事實이지만 이 地球속에서 사는 人間따위야 時間의 絶對的인 威力앞에 어쩔 수 없는것도 當然한 일이지만 옛사람들은 그래도 人間답게 時間에 물리거나 쫓려서 살진 않았다.

나의 祖父의 境遇만 해도 一年에 三南을 巡廻(始祖祭나 門會로)했는데 나귀타고 悠悠히 自然과 時間에 順應하면서 景致가 좋은곳에서는 정마군에 “여봐라 말을 세워라”하시고는 詩調한 首를 읊으시고 또떠나고 親한 벗들을 고루고루 찾으시고 始祭나 門會에 參席하고 20日이나 한달만에야 돌아오시곤 했다. 현대 現代 筆者만 해도 무슨 일이있어 釜山엘 갈라치면 바쁘면 飛行機이고 普通 高速빠스나 汽車인데 옛날에 비하면 大端한 速度로 가서 허둥지둥 볼일보고 親日도 찾을 사이없이 飛行機나 汽車時間에만 神經을 쓰다가 그냥 와 버린다.

이렇게 빠르게 時間에 쫓겨다녔다고 해보아야 옛사람들만큼 일을 했다거나, 自然이나 人間의 潤氣있는 生活을 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한것이면서 왜 이렇게들 時間에 쫓겨다니는지 알 수가 없다. 時間과 自然에 適應이나 同化할 줄 모르는 것이 現代人들의 特性인가보다 그러면서도 그 아까운 時間을 지키지도 않고 남에게 被害를 주니 公害는 틀림없는 公害인 것이다.

⑥ 흉내公害, 흉내는 流行과 半同意語가 된다. 더욱이 이것을 煽動하는 것이 “매스콤”이다. 現代가 “매스메디어”의 時代라고 하지만 各種情報가 快速으로 傳達되니 어제

巴里에서 流行한 것이 一週日以內에 서울에 導入된다.

이 흉내는 衣服에서 色에서 形에서 言語와 思潮에서 事件에까지 多様하다. 뚱뚱보아가씨가 東京이나 巴里모드라고(날씬한 모델들의 写真을보고)나도 너도 그 흉내를 내니 보는 사람이 괴롭다. 한사람의 뜻없는 或은 無意識의인 흉내가 三者에 不快感을 주니 公害가 되는 것이다.

이 흉내는 비단 服裝程度뿐만 아니다. 小説서 映画, 政策에서 行政方法까지 多彩롭다. 문득 생각나는 것만도 清溪川高架道路, 市民証 가슴의 名札付着에서 日用品, 各種商品, 書籍에 이르기까지 日本이나 西歐의 흉내아닌 것이 거의없다. 主体意識을 絶叫하고 있으면서 創意로 한것보다는 越等히 흉내를 내는것이 많다는 點에 一種의 悲哀마저 느끼게된다.

⑦ 多目的의 公害: 多目的이 왜 公害가 되는가 反問이 나올만한 말이다. 近來 우리들 周邊에서 多目的이란 말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曰, 多目的의 땀, 多目的의 흥, 多目的의 廣場, 多目的의 女人等等 특히 建築部門이나 建設部門에 多目的이란 말이 흔히 쓰여지고 當然한 것처럼 常識化 되어있다. 이것은 建築에서 機能主義가 관을 치듯이(建築理念의 全部도 아니면서도) 多目的의 建物이나 綜合建築이란 것이 가장 옳은것으로 되어있는데에서 問題가 되는것이다.

建築의 “아카데미즘”이 아니라도 多目的이란 中途半端, 模糊 曖昧한 것이고 어느것 하나도 完全치 못하고 使用이나 管理에도 不利하기 때문에 多數에게 弊를 끼치고, 또 비위에 거슬리게 하므로 公害라고 불려보는 것인데 이것은 新單語의 流行이나 체에도 關聯이 있는것이고 結局은 經濟力의 貧困으로 慾心을 내서 이것도 저것도 다-해보고 싶다는데서 多目的이라고 이름 붙이고 伸縮性이니 融通性이라는 美名아래 盛行되고있다.

例를 들어 多目的의 흥이라는 建物을 보자 集會에도 演劇에도 會議에 쓸 수는 있어도 어느것 하나에도 滿足이나 充實하게 쓰여질 수 없을때 使用하는 多數가 그만큼 不使即 弊를 입는다. 이것은 建築主의 要請이였는지 建築家의 創案이였든지간에 可笑로운 일임엔 틀림없다.

우리 俗談에 “싼게 비지떡”이란 말이있다. 적은 돈으로 여러가지 좋은것을 짓겠다는 心思는 一種의 強盜的인 點이 없지않다. 正當한 投資에 正當한 結果를 要求한다는 正當의 길이 있는데도 流行이나 慾心이나 체로서 多目的의 多目的하니 기가막힌다.

⑧ 韓國의 公害, 韓國人이 韓國的인 것이 왜 公害가 될까? 그 以前에 韓國人은 왜 韓國的이어만 하는가? 始初부터 韓國人은 韓國的이 아니었던가 萬一韓國的이 아니었다면 그는 確實히 反國家的이었다고 보아야 하겠다. 反國家行爲 処罰法이 있는데 구태어 韓國的이란 號만일가.

韓國의 民主主義! 民主主義에 美國的이고 英國的 이고 日本的이란게 있는지? 大體 韓國의 民主主義란 무엇인지 놀리는것인지 가지고 노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韓國의 精神, 韓國的行政, 韓國的 現代建築, 韓國的 協會, 韓國的 建築家, 韓國的 生活概念.

아~ 韓國的이란 무엇에든 붙이고 이것을 붙임으로 해서 가장 愛國한다는 뜻처럼 생각들 하는 모양이다. 이 公害는 國家至上이나 民族至上이라는 말과 同意語가 되는것이며 우리들에게 주어진 多目的인 術語인것만 같다. 愛國 公害와도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다.

여기서 韓國的인 것이 公害가 된다는데는 事實은 우리들이 가장 不愉快하게 느끼는 外國人에 對한 韓國的인 待遇나 態度인 것이다. 아마도 우리나라 開國以來 어느때보다도 가장 強力한 行政力을 가진 때가 아닌가보는데 바로 이 強力한 行政力이 國民에게만 強力했지 外國人이나 外國機關에 對해서는 無力하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다.

金科玉條같이 내세우는 韓國的이라는 말과 伝家의 寶刀같이 使用되는 行政力이나 司法權이 外國機關, 外國商社, 外國人에게는 너무도 無力하다는 點이다. 觀光이나 商用으로온 外國人이 韓國의 여러點에 對해 그 系統에 專門家도 아니면서 찌꺼려면 몇마디의 無責任한 發言이 國內의 專門團體나 專門家들이 發言한 것보다 더욱 比重무겁게 報道되고 取扱된다는 點이다.

曰 “韓國의 建築家들은 建築設計를 해본經驗이 없어서 Hotel같은 것은 設計할 수가 없다. “韓國같은 發展途上의 國家의 아파트는 一世帶가 13坪 以上の 것은 할必要가 없다” “韓國의 古建築이 아름다운데 왜 現代建築을 할必要가 있는가” 等等의 專門的인 建築에 關한 發言을 新聞記者나 장삿군들이 마구 찌꺼려냈고 또 그것을 옳은 말이라고 믿고 있는 行政家, 經濟人, 文化人들이 意外로 많다는 것을 알때 呀然만할 수 없다.

果然이런것이 韓國的이라고 떠드는 層이 더 많다면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 밖에 없다. 옛부터 弱者에 強하고 強者에겐 弱하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요즈음 公害라고 말할 수 있게까지 된 韓國的이란 것인것만 같다. 萬一그렇다면 가엾고 불쌍한 일이다. 왜 우린 우리들끼리에는그럴사하게들 말하고 行動하면서도 外國人에게는 寬大하고 尊敬하고 同情的일까?

누군가가 말하기를 “우리의 自由도 守護못하면서 他國의 自由를 爲해 派兵해야 하는가라고”

⑨ 電話公害, 남의 집이나 남의 事務室에 가서 電話機만 보면 쓸데없이 電話를 거는 버릇이 있는 親旧들이 있다. 어떤 誘惑을 느끼는 模樣이다. 이런 親旧들은 公衆電話는 걸지 않는다.

이런것도 電話公害의 一種이지만, 한밤중이나 바쁜 勤

務時間中에 事務나 公務以外の 하찮은 不必要한 電話를 주거는것.

한번 電話機를 들었다하면 몇十分커녕 몇時間을 饒舌을 늘어놓고 三年前의 고사떡 얻어먹은 人事까지 하는 中年以上の 婦人들 沐浴中에 오는 電話, 用便中에 오는 電話 그것도 잘못걸려오는 電話 相對가 보이지 않는 電話 이젠 단 벗어나 未安합니다라든지 高官에게 電話筒에 머리를숙여 人事하며 받는 電話, 恐喝電話脅迫電話, 아무리 바빠도 本人과 直接 相面했다면 對答안해도 좋을일도 電話가 왔기에 안받을 수 없다는 電話의 魔力에서부터 現代文化의 利器는 結局 人間을 奴隸로 만들고 있다.

이 現代文明의 利器처럼 便利한 것도 없지만 또 이것처럼 故障났을때 不便한 것도 없다. (代替할 것이 準備 되어 있지 않다. 또 故障이 자주난다.) 우린 電話를 비롯 해서 數 많은 所謂 文明의 利器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勿論 우리生活을 便利하게 하겠다는 단 한가지 理由로서 였지만 그 利器가 어떤때는 搖地不動의 不便과 困難을 便利와 같이 가지고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이 困難과 不便이 나아가서는 人間에게 주어진 오직 神이준 一回의인 生命에까지 危脅을 준다면 利器란 뜻은 우스운 것이된다. 하기가 이 世上의 모—든 公害가 다 便利하고 살기좋고 人間爲主의 便에서만 서서만든 어떤 科學, 機械, 商品들 때문에 생겨난 것이지만 그래서 電話도 亦是 그런 部類中의 하나이니 公害라고 이름붙여 보는것이다.

① 崇拜公害 / 崇拜란 남이 훌륭할때 (人格, 知識, 教養, 業績, 健康等) 그를 崇拜하는 것이며 이것이 公害가될 理가 없는데도 구태어 公害의 列에 올려놓는 것은 그런 崇拜를 말함이 아니고 特定人을 崇拜한 나머지 그를 偶像化하고 더욱 나아가서는 神格化까지 하는 따위의 崇拜를 말하는 것이다.

過去 日本天皇의 境遇나 獨逸의 “히트러”等 第二次大戰의 戰凶들이 바로 그런 親旧들이었음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이런 일은 政治나 宗教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들인데 似而非宗教의 教主라는 者들은 거의 이것을 強要 하고 있다. 政治面에서는 共產主義나 社會主義國家들 即 唯一思想을 政治 “이데오로기”로 하는 體制의 國家엔 흔한 일들이다.

이럴때 그들은 真心이건 假字이건 그를 崇拜하는 체라도 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면 公害인것은 確實해진다.

② 卑屈公害 / 이 卑屈公害부터 以後에 列挙할 公害들은 前般에 列挙한 것의 正反對되는 것도 亦是 公害의 素地 가 있는지 또는 公害가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오만의 反對가 卑屈인듯이 不潔의 反對인 清潔, 記憶對忘却等等...

國家나 軍隊나 團體나 學校에서 한사람의 卑屈함으로 因해 입는 被害는 때에 따라서는 絶對的이고 決定的인 때가

많다. 가장 좋은예가 軍隊에서 上部 指揮官의 卑屈한 行動이 그 部隊全體에 미치는 點을 像想만해도 소름이 끼친다. 國家를 代表하는 外交官, 團體運動競技의 한 選手의 卑屈에서부터 家長의 卑屈, 對外的인것 뿐만아니라 私的으로는 同僚의 卑屈, 上官의 卑屈 等은 참을 수 없는 구역질 나는 일들이다.

③ 清潔公害 / 清潔한 것이 왜 公害가될까 異常한 이야기이지만 不潔한것이 公害가 된다는 것이 確實한 마당에야 그 逆 또 眞이 아닐 수 없다. 나만이 清潔하고 即 潔癖性인 것임에 市內뺨스를 타면 若干濫洩한 衣服이나 洗手 안한 사람만 있어도 그와 몸이 닿을가봐 避하고 얼굴을찌푸리고 손수건을 가지고 입과 코를 막고 야단을 치는 사람이 있다. 特히 女子인 경우 모든 巴士속의 男子가 다 癡漢이나 된듯이 몸을 도사리고 툭치고 중얼대고 하는, 世上이나 世上사람들이 다 不潔하고 自己만이 清潔하다는 式의 言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不快感을 주는가를 像想만도 해보라.

이런것은 確實히 害公害와도 通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 일수록 一年에 沐浴을 한두번 밖에 안하는주제 그렇다면 일은 더욱 佳境에 들어가서 蔑視하게끔 될것이다. 事實異常하게도 世上에는 自己劣等意識으로서 自己가 不潔한 것을 自覺하고 그것을 反對로 外部에 表現하는 境遇가 많은것을 어찌하라.

④ 寬容公害 / 寬容이란 一段은 多小間에 自己가 損害을 (物, 心的으로)보고 들어가는 것이기에 損益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精神的或은 思想的인 卑怯性이라까 無主觀性을 들어 불려는 것이다.

大概의 境遇 政敵이든지 事業의 競爭者이든지가 死亡하면 거의 다 寬容한다는 버릇이 있다. 죽은자가 生前에는 죽이고 싶도록 미웠어도 그가 죽어버리면 그의 功勞를 讚揚하고 生前의 그의 잘못을 容許하고 哀悼한다. 이러한 心情을 人間의 常情이란 말로 表現하지만 事實인즉 어떤 意味에선 安心 即 神經쓰지 않아도 되겠다는 安愜感乃至는 痛快感이 作用되는 것으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는 죽었으니 나와 競爭할 수도 없다는 고소한 마음이 表面에 寬容이란 形式으로 나가면 남들도 훌륭하다고 볼 것이니 一舉兩得이 된다는 心理作用이 多分하다는 點이 있다는 點이다.

中國의 古事에서 그들의 寬容과 反對되는 澈底한 心理를 그런 例를 들어보면 大概의 境遇 敵이나 怨讐가 죽으면 萬事終焉으로 끝나는데 比해 이 例는 너무도 始終一貫 澈底하기에 眞迫感마저 느낀다.

即 中國 古代에 自己아버지가 政敵의 謀陷으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그를 죽일려고 따라다니고 그 亦是 그것을 알고 避身해 다니다가 結局은 病으로 죽는데 그의 아

아들도 相對方의 아들이 復讐해 올것을 알고 아버지의 屍體를 깊은 湖水속에 石棺으로 해서 埋沒시켰는데 끝내 그것을 알고 그湖水를 찾아 물을 다 퍼내고 石棺을 부수고 白骨을 꺼내서 散散히 부셔버리는 死後의 白骨에까지도 復讐를 했다는 古事가 있다. 이것은 寬容과는 正反對가 되는것이나 眞意의 寬容이 人間의 美德임엔 틀림없으나 그 寬容이 뜻의 表現일때가 不道德하다는 것을 말하고자하는 것이다. 敗北를 寬容으로 變質시키고 아침을 寬容으로 表現하고 快哉를 寬容의 形式을 벌려서 속으로 滿足하는 따위의 行爲가 公害에 屬할 수 있다고 보기에 別난 公害로서 말해보는 것인데 이때 가장 被害를 입는 것이 寬容이라는 아름다운 뜻을 가진 術語일 것이다.

⑭ 忘却公害, 記憶公害의 反意語로 約束을 時間을 信義를 境遇를 原則을 秩序를 倫理 道德을 立場이나 処地를 自己의 實力이나 能力 力量을 却忘하는 일은 우리 周邊에는 너무도 많다. 바로 이 忘却 때문에 社會 問題에서부터 個人 人間의 紛叫에 이르기까지 家庭 不和에서 官弊, 民弊, 秩序 破壞에서 違法反逆에 까지 헤아릴수 없을 程度의 許多한 被害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니 全人類에게까지 미치게 된다. 이 公害야 말로 科學的 物理的도 아니면서 그것들 보다 더 무서운 威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⑮ 勸誘公害, 煽動, 廣告, 強要, 誇張 公害들과 一脈相通하는 것으로서 特히 利權이나 장삿군적인 面이 많은 참을 수 없는 公害인 것이다. 保險加入 勸誘의 끈질김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強要性을 띤 勸誘公害가 橫行하고 있는가 이 勸誘라는 것은 一種의 說得인데 說得力이란 特殊한 本質을 가지고 있다. 卽, 가장 強한 說得力을 가진 것은 亦是 힘으로서 權力 經濟力 雄辯力인데 絶對權力者의 부드러운 勸誘는 命令的인 色彩를 가지고 있어 싫어도 說得當하게 마련이다. 金力亦是 方法手段을 가리지 않고 相對에 作用해서 說得을 시킨다. 言辯의 能熟으로 說得을 시킨다. 여기서 建築하는 사람들은 不幸히도 이 세가지의 힘이 없으므로 建築主나 發注者를 說得은 커녕 도리어 그들에게 反對로 說得을 當하고 만다. 이런 現實이 오늘날 우리 社會에 좋은 建물이 못서는 理由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들의(權力, 金力の 所有者들) 無知와 耽慾을 充足 시키는데 利用當하고 있으니 좋은 建물이 실수가 없는것은 當然한데 社會는 이 責任을 建築家에게만 씨워 버린다. 이렇듯 說得 公害 라고도 할 수 있는 (점잖게 말해서) 勸誘 公害라고 해 보는 것이다.

⑯ 慈善公害, 慈善이란 社會的으로로나 人間的으로나 훌륭하고 좋은 일임엔 틀림없다. 그런데 公害라고 하는 理由는 簡單하다. 法 理論에 “法の 虛를 알고 罪를 犯하는 者에 對한 罰은 더욱 嚴하다”라고 있다.

이와같이 慈善의 美名을 利用해서 惡을 行하는 者들을 볼 때 이것이 萬人에게 公害가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때와 時를 가리지 않고 거리에서 機關에서 洞會에서 慈善이란 口號아래 義捐, 救援, 援助金을 半強要當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 열매 무슨 무슨 色리본, 水災民 赤十字費 等法에도 없고 規定에도 없고 오직 本人의 自意에서 이루어질 때 그뜻이 있는 慈善金 慈善心을 여러가지 方法으로 強要가 아닌것처럼 強要받고 있었지 않았는가.

水災義捐金이나 사랑의 열매 크리스마스 慈善金 等の 使用한 곳과 明細가 新聞이나 其他의 方法으로 發表된 일이 몇번이나 있었을가. 不信의 時代이기에 우린 그모인 額數와 使用處(傳達處)가 疑心스러워 지는 것이다. 萬一 그大部分이나 一部分이라도 卽 意味에 或은 몇몇 사람이 着服을 했다면 慈善의 뜻은 흐려질 것이고 疑心은 더욱 커지고 다음 부터의 慈善은 成果가 나빠질것은 當然한 것이 되겠다. 이런 疑心の 證據로서는 不良學生들이 힌 掌甲을 끼고 힌 마스크를 하고 힌 箱子를 먹고 거리에 募金해서 學費도 沒인 放湯費에 썼다는 報道를 몇번 본 記憶이 있다.

問題는 報道되지 않은 곳에 있고 또 像想될 수도 있다. 慈善이란 果然 疑心을 품고 半強要되여서 까지 慈善을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慈善의 뜻이 있는지? 到底히 알수가 없다.

例로서 賦課되는 赤十字 會費라는 것은 法이나 規定으로 義務化된 것도 아닌데 洞職員의 推則에서 金額이 配當 賦課되고 各種民願書類 處理時에 赤十字會費 領收証을 提示하지 않으면 民願書類를 處理 않해 준다는 것 等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理解가 困難하다.

言必則 弱한 洞職員을 좀 보아 달라는 것이다. 그것은 募金額數가 卽 그職員의 勤務成績의 點數가 된다는 것이다. 長髮族의 責任檢拳數量 交通違反 車輛의 摘發責任 數量 税金의 徵收 責任割當 額數 等과 뭐 別다른 것이 없다.

萬一 慈善이 이런 式으로 행하여져야 한다면 慈善이라고 하지 말고 法이나 規定을 明確히 定하고 그 範圍內에서 하면 될터인데도 慈善으로 그냥 두고 行하기에 慈善公害란 말도 있어서 나쁠것 없다고 본다.

⑰ 獨善公害, 善은 善이나 自己 혼자서 만의 善이될때 問題가 생긴다. 善이란 人間의 完全 圓熟과 眞과 美를 內包한 것을 말하는데 獨善이 되면 惡으로 通한다. 勿論 法的인 것은 아니고 倫理나 道德인 面이다. 그러나 獨善이 마치 習慣이나 常識化 될때 많은 사람들이 弊를 입는다.

獨善을 하는 사람은 적어도 被害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 公害는 틀림없는 公害인 것이다.

大概 獨善者들은 滔滔한 雄辯으로서 自己의 獨善을 肯定化, 正當化 시킨다 이때 大部分의 大象은 그럴사하게 넘어간다. 여기서 獨善者는 意氣揚揚해서 自身도 도취되

여 始初意識했던 獨善도 正當한 것으로 認識하고만다. 바로 이때가 무서운 公害의 毒素가 發効하기 始作하는때이다. 自己만이 萬能이고 唯善이다.

小數의 自己들만이 選人이라는 錯覺(狂信的)에서 唯我獨尊이 된다. 獨善, 獨高, 獨裁, 獨尊等等 自己만이 自己들만이라는 生覺은 歷史的으로도 滅亡의 길을 걸었다는 史例를 잘 알면서 이 獨善의 公害에 浸害되면 그런것조차 忘却하고 繼續 獨善을 強行한다. 그의 가는 길은 오직 滅亡뿐이다. 近者公害가 우리 人類世界에 重大한 關心事가 되고 이글과 같은 漫調公害 放談도 나오게 되는 줄 안다. 何如間 公害는 廣義의 意味를 가지고 있고 그 本質

에서 科學的이건 物理的이건 또는 心理學的의이든 그 原菌이 人間이고 被害를 입는 것도 人間이라는 即 加害者도 被害者도 모두가 人間이라는데 特徵이 있고 아주 “아이로닉”한 놈이다.

따라서 人間이 있는곳엔 반드시 公害가 있게 마련이고 公害는 永遠히 그度の 差異는 있어도 人間과 共存한다는 運命에 있고 同時에 人間은 公害와 共存할 수 밖에 없다는 結論인데 要는 그害의 危險度가 人間の 制御 限界를 넘었을때 遇미 시켜서 廻避할 方法이 없을때 또는 公害의 眞意를 把握도 못하고 關心을 기울이지 않을때 人間은 地球는 이 公害로 因해 滅亡할 것이다.

## 會員奇稿 公告

### 1. 作 品 .

- ㄱ) 平面圖, 透視圖, 或은 全景寫真
- ㄴ) 設計概要 (POINT)
- ㄷ) 寫真은 되도록이면 墨白사진으로 內裝, 특수部分
- ㄹ) 규격(도면)은  $\frac{1}{100}$  축척으로
- ㅁ) 圖面說明文은 한글로 表記할것.
- ㅂ) 作家 명함版 사진 1매

### 2. 論說이나 論文 .

- ㄱ) 會員코너  
체험기, 기행문, 취미